

『영미연구』

제51집 (2021): 1-18

<http://doi.org/10.25093/ibas.2021.51.1>

그레엄 그린의 『사건의 핵심』 속 종교와 실천윤리 재고

김 명 성

단독 / 목포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레엄 그린의 『사건의 핵심』 속 종교와 윤리, 그리고 실천이라는, 문학사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문제를 다시 돌아본다. 이 소설은 가톨릭 신자인 주인공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가톨릭 율법과 사회적 윤리의 본질에 관한 논란들을 촉발시켜왔다. 가톨릭 전통의 교리를 거스르면서도 스스로의 도덕적 신념에 충실한 그의 선택이 종교적 존재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맺는 관계의 바탕 위에서 마주하는 불가피한 모순을 보여주며, 또한 이러한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종교적 경험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적 경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톨릭의 형식 속에 남는다. 본 논문은 스코비의 종교적 고민이 율법주의적 제약을 벗어난 윤리를 실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톨릭의 형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 그의 종교적 행위의 본질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는 억압적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념과 실천의 지평이 종교적 형식의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사건의 핵심』은 스코비의 죽음을 통해 본원적 도덕성으로 회귀하고 종교윤리를 실존적으로 재정립하는 순간을 가톨릭의 규율과 사회적 삶의 복잡한 관계 속 한 공간에 담아낸다.

주제어: 그레엄 그린, 대타자, 『사건의 핵심』, 슬라보예 지젝, 탈근대적 주체

I. 서론

그레엄 그린(Graham Greene)의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은 주인공 헨리 스코비(Henry Scobie)의 종교적 갈등을 다룬다. 가톨릭 신자인 스코비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소설이 출판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비평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가톨릭 율법과 이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설의 이야기가 주인공의 자살에 이르러 율법적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촉발시켰기 때문이라는 점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종교와 윤리, 그리고 실천의 문제는 사회적 관습과 신학적 법률 사이 복잡적 층위 속에 위치해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인식 공간에서 “연민, 공포, 사랑과 절망 및 한 인간의 구원의 과정”(Wyndham 21)을 살인과 간통, 질투 등, 가톨릭의 많은 금기들과 함께 담아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종교적 신념과 윤리의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종교윤리와 도덕의 의미들이 다층적으로 교환되는 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스코비의 자아는 분열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의 종교적 신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가 삶의 방식과 분열되어있었다는 사실이다. 분열되어 있음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관계의 바탕 위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 삶은 항상 현실적 관계와 그 바깥의 규율 사이의 긴장 관계에 얽혀있다. 한편으론 능동적으로 또 한편으론 수동적인 이 관계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종교적 경험이 탄생한다.

스코비의 분열된 종교적 신념은 근대적 주체가 탈근대적 지점으로 이행한 시대를 표상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의 분열은 신과 대면한 데카르트적 주체가 신으로부터 소외되며 타자로서 신과 재대면하게 된 과정의 어느 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종교적 경험은 새로운 실존

적 공간으로 이동한다. 흥미로운 점은 스코비가 도달한 이 실존적 공간이 가톨릭의 형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는 가톨릭 교리를 부정하지만 자신의 주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신과 관계하면서 스스로를 제도적 종교의 영역에 남긴다. 신을 회의하는 순간에도 그는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고, 종교적 회의를 통해 또 다른 종교적 실천으로 회귀한다. 그의 신념과 행위의 모순이 그의 종교행위를 구성한다.

본 논문은 스코비의 주체성을 그의 종교적 실천행위와 관련하여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그의 종교적 윤리성과 행위의 본질을 재고한다. 이것은 단순히 스코비의 종교적 행위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스코비의 종교적 고민은 율법주의적 제약을 벗어난 윤리를 실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톨릭의 형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 그의 종교 행위의 본질이 존재한다. 스코비의 종교 행위는 실천윤리가 더해진 실존적인 형태를 가지지만 이것이 가톨릭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억압적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념과 실천의 지평이 종교적 형식의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사건의 핵심』은 스코비의 죽음을 통해 본원적 도덕성으로 회귀하고 종교윤리를 실존적으로 재정립하는 순간을 가톨릭의 규율과 사회적 삶의 복잡한 관계 속에 담아낸다.

II. 탈종교 윤리와 주체의 한계

서아프리카의 시에라 리온(Sierra Leone)에서 15년간 치안을 담당해온 스코비는 부패와 타락이 일상화된 마을에서 양심적이고 금욕적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을 증오”(The Heart of the Matter 175)하는 윌슨(Wilson)이나 “바퀴벌레 사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70) 그곳의 “잔인한 흑인들을 미워하는”(13) 해리스(Harris) 같은 인물들과는 달리, 서장으로 승진을 못함에도 여전히 그곳에 남기를 원한다.¹⁾ “누구든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귀를 틀어막거나 눈을 감아버릴 수 없

는”(187) 책임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는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외부의 사건들로 자신의 감정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도록 노력한다. 그가 시에라 리온을 떠나지 않는 것은 도시에 대한 애착 때문은 아니다. 그곳에서 근무한 15년은 “낭비한 시간”이고(20), 그에게 남은 것은 “나쁜 놈이라는 별명”뿐이다(11). 그를 그곳에 잡아두는 것은 연민의 감정이다. 그에게 있어 “사랑은 곧 연민”이며(159), 연민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마음을 지키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내 루이스(Louise)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녀의 행복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21). 이 책임감과 연민의 감정은 둘의 관계에서 특별하다. 아내는 스코비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녀의 삶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연민이란 스코비를 외부 세상과 연결해주는 가장 내밀한 감정이다.

헬렌 롤트(Helen Rolt)와의 불륜에서도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그는 아름답거나 지적인 여성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아름다움에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헬렌에게서 느낀 “어린아이의 초라한 모습”은 그로 하여금 “슬픔과 애정, 그리고 커다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159). 이 연민의 감정이 시에라 리온을 떠나기를 원하는 아내의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유세프(Yusef)에게 불법적인 돈을 빌리도록 하며, 또한 헬렌과의 관계 정리도 힘들게 한다. 이는 결국 그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하도록 한다.

스코비를 죽음으로 이끈 그의 연민에 대한 비평가들의 입장은 보통 두 가지로 상반된다. W. H. 오든(W. H. Auden)은 연민을 느낀다는 사실은 자신을 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최영호 4, 재인용). 연민의 감정에는 본질적으로 자만심이 있으며 이 자만심이 그를 자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반면, 조셉 하인즈(Joseph Hynes)처럼 그의 연민이 책임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의 연민은 “자애와 관용”에서 발생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725).

타인에 대한 순수한 배려일수도, 혹은 반대로 막중한 책임감일수도 있지만, 그의 연민이 타인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적지 않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연민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맞이하는 죽음을 예수의 모습과 중첩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스코비는 죽음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희생을 실

천함으로써 인간적 사랑의 한 면모를 구현해낸다. 그는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연민과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가톨릭 전통의 교리를 위반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 연민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그의 사랑은 종교적 규율을 위반하면서까지 그가 지켜야 하는 내밀한 신념이다. 스코비의 신념과 실천은 종교적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관습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그의 종교적 삶은 사회적 관계와 가톨릭 규율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한다.

종교가 인간의 삶에 알려주는 핵심적인 것들 중 한 가지는 그것에 비치는 인간 스스로의 이미지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여러 영역들 속 성찰 아래 들어있는 것과 같은 고민이다. 종교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종교 속 인간을 이해하는 것임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스코비에게 있어서 종교란 무엇이고 신념이란 무엇인가? “율법주의와 진정한 신념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Leah 776) 이 작품은 스코비의 신념이 사회적 범주의 안팎을 오가는 복합적 차원에서 종교윤리와 도덕의 다양한 의미들이 교환되는 과정 속에 위태롭게 서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탈관습적 실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스코비의 종교적 태도는 아내 루이스(Louise)와의 대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루이스는 남편이 서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일로 자신을 바라볼 시선 때문에 주변 여성들과의 사교모임을 피하려 한다. 루이스는 스스로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속물적으로 세속적인 관계에 집착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종교적 신념이란 다만 미사에 참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세속적 화려함과 물질적 삶에 집착하지만 겉으로는 종교적 관습들을 성실히 따르는 아내 루이스와는 달리, 기도를 하는 행위가 “일상의 형식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순간 그저 “판에 박힌 일상에서 지루함”(154) 느낄 뿐인 스코비는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율법적인 종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한다. 이것이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핵심일 것이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수록 심한 책임감과 연민을 느끼는 그의 결혼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놀랍지 않다.

궁극적으로 종교적 윤리와 현실적 윤리는 서로 수렴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윤리적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과 인간 스스로의 자각적 이해는 크게 떨어져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수렴은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개개인이 가진 빈약한 체험과 직관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러한 체험과 직관이 모여 엮어내는 사회적 망 속에서 개인이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 도달하기란 어렵다. 스코비의 자살은 종교윤리와 현실윤리가 상충하는 개인의 경험적, 직관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핵심』은 다양한 사건들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가톨릭 신앙 사이의 갈등”을 다루지만(이광희 129), 소설의 가장 극적인 위기는 스코비의 자살에서 비롯된다. 윤리에 대한 종교적 관점에는 제도적 엄격함만이 그 근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관찰된다. 또한 종교적 의미에서 엄격히 말하면 스스로 죽음을 행한다는 것은 초월적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스코비에게 있어서 신이란 세상의 초월적 법률을 규정짓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신은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그에게 지워주는 대상이다. 강하게 의식하건 덜 강하게 의식하건, 그의 삶에 신의 율법과 제도적 규범에 대한 회의는 신이라는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역동성을 부여하는, 주체의 생존을 위한 총체적인 과정이다. 스코비에게 있어 이러한 회의는 근본적이다. 신을 믿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그는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삶이 자신의 “주머니 속 책임감”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242). 그에게 있어 책임감이란 현실윤리의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종교는 그의 삶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스코비는 신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으려”한다(242). 종교가 부여하는 제도적 규범은 사회의 도덕적 근본은 물론 개인적 삶의 기준 역시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코비는 신의 죽음이 선언된 시대, 즉 절대선과 초월적 윤리를 전달하는 종교의 역할이 이미 붕괴된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점들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차원의 종교윤리가 해체되고 종교윤리와 현실윤리가 분리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스코비는 “신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의 윤리,” 즉 “동정심”으로 주체적 대타자가 되려한다(박윤승 87). 그

는 독단적 규범체계를 허물고 가치의 전환을 재촉했던 시대의 탈종교적 시선으로 사물을 판단한다.

대타자라고 함은 라캉의 언어 속에서 “상징”이라 말로 표현되는 현실 질서를 지탱하는 “진정한 타자성”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김석 180). 대타자는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근원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추상적인 존재로서 인류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인간 내면을 확립하는 수행원리가 된다. 이 역할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에 의해 수행되어 왔지만 전근대적 신이 해체된 이후에는 다양한 인격적, 비인격적 대상들로 인해 대체된다.

신이 해체되었다는 말이 인류가 종교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전의 사회에서 신이 가졌던 위상에 변화가 있음을 말해준다. 종교적 회의와 병행하는 주체성 확립은 인류가 근대로 이행해온 이후에서야 관찰되는 현상이다. 타인에 대한 스코비의 연민과 관심은 그가 제도적 종교윤리의 경계를 벗어나 스스로를 주체화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범죄자인 유세프로 하여금 “검은 속마음 속에 유일하게 선한”(151)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스코비의 연민이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정”과 다르지 않다(최영호 4)는 것은 신과 종교,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재정립된 시대의 소산이다. 아내에 대한 마음과 헬렌과의 관계 그 무엇도 끝맺을 수 없는 이유 역시 스스로의 위상을 주체적으로 정립한 비슷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스코비는 신을 회의함으로써 삶과 종교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문다. 하지만 그는 “상충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딪히면서 순수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함”을 모르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헬렌과 루이스, 그리고 신의 요구를 모두 함께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주체적 한계와 직면한다(Antor 107).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신의 역할을 대신할수록 그는 존재론적 상실과 상징적 의무의 무게를 마주한다. 신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 혹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능하다. 신적 존재에 대한 의존이 인류의 삶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은 신적 규율의 억압적 힘이 인간사회에 효율적인 계급질서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외의 복잡한 원리와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지만 인류는 신을 떠나

보낸 적이 없다. 오히려 신은 현실적 삶 속의 보다 근원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인간과 얽혀 주체의 중압감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스코비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은 대타자적 위상의 무게감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삶과 윤리관은 종교가 탈중심화된 시대에 주체가 마주하는 난관을 보여준다. 그는 아내 루이스와 헬렌, 유세프 등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또한 그가 가톨릭과 관계를 맺는 순간은 그것을 회의하는 순간뿐이다. 그는 회의를 통해 종교적 실재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전통적 종교의 범주 밖에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정립한다.

Ⅲ. 물질화된 종교와 실천윤리

이처럼 스코비의 신앙은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타인에게 전가되어 있을 뿐,” 사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된다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주장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스코비의 분열된 신앙은 여러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생긴다(『죽은 신을 위하여』 15). 종교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경험된다고 함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신과 인간이 관념적, 혹은 개념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닿아있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종교 혹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로의 통로를 만드는 내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지젝의 설명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오히려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설명에 따르면 근대적 이성 은 신적 존재와 결별했다고 믿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종교적 신념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양태가 아니라” 주체의 현실 행위 속에서 구현되어 “사회적 행위 속에 항상 물질화 되어 있다”(Object 40).²⁾ 믿음이란 외적인 것이며 이성과 관념의 영역 바깥에 있다. 개인의 신념이 부족해졌다거나,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제도적 종교의 권위가 사라졌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종교 행위라는 형식을 남겨두는 것이다.

주체가 종교를 회의하더라도 신적 대타자는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통에서 종교적 신념, 혹은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신념 그 자체는 한편으로 감각적으로 존재한다. 이점에서 신념은 본능과 충동의 문제이며 쾌락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톨릭 교리를 향한 스코비의 회의는 그의 신앙이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근대적 종교 경험의 근원적 본질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희생만이 루이스와 헬렌을 더 이상의 비극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믿고 목숨을 끊는 스코비의 선택에서 독자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대타자의 위상을 얻고자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타자의 부재를 견뎌내지 못한다. 그의 자살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그는 종교를 회의하지만 동시에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종교적 행위를 지속한다. 랭크(Rank) 신부와의 고해성사에서 그는 종교에 지쳤음을 말한다. 그리고 신을 사랑하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스코비는 종교를 회의하지만 동시에 고해성사라는 종교적 형식을 실천한다. 이 같은 그의 수행적 종교 실천은 그가 자살을 결심한 후 교회에서 나누는 신과의 대화에서보다 극적으로 표현된다.

주여, 오직 저만 죄인입니다. 문제의 답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헬렌과 아내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 했습니다. 나에게서는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 그들의 핏줄기로부터 저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지쳐 있고 저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도 저에게 지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계속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 제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 천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 벌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저는 평온함을 갈망해왔지만 다시는 그 평온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손길 밖으로 떠나면 당신은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241)

신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장면은 두 가지의 사실을 전달한다. 첫째, 스코비는 고백을 통해 신과의 거리두기를 행한다. 스코비의 기도는 종교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을 결심했음을 신에게 알리는 신성모독을 행한다. 둘째, 스코비의 신성모독과 신과의 거리두기는 전통적 종교형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현실적 차원의 실제 종교행위를 순수하게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스코비는 여전히 신의 영향 속에 남고 신의 억압적인 성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신에게 취하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을 회의하는 순간보다 스코비에게 만족과 위안을 주는 것은 고해성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스코비와 가톨릭이 맺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모순적이다. 하지만 이 모순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스코비는 가톨릭 교리를 회의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신이 필요하다. 종교는 그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의무를 결정해주는 교리적 존재가 아닌, 주체성 정립을 위한 관계물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이 “멜로드라마적 삼각관계에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제4의 인물을 도입하여 이야기에 도덕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부과하고 있다”(105)는 데이빗 럽지(David Lodge)의 주장처럼, 스코비에게 있어서 신은 충동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타자의 위상으로 경험된다.

죽음의 직전에 스코비는 “신이여,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다(249). 사랑의 대상은 신일 수도 있으며, 루이스 혹은 헬렌일 수도 있다.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 순간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말이 신을 향해있다는 점이다. 스코비는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지만, 죽음의 순간에 신과 관계함으로써 제도적 종교의 영역에 자신을 남긴다. 그리고 그는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종교적 행위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마지막 순간에 대타자에게 자신의 부담을 전이시킴으로써 신과 관계한다.

스코비의 고해성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적 신념이 부정되고 금기가 해제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구조가 여전히 전통적 종교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코비의 회의는 이러한 구조 속 한 표현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형식과 내용

의 모순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스코비의 종교 행위를 구성한다. 그에게 있어 종교란 믿지 않지만 실천하는 것이고, 종교적 회의를 통해 또 다른 종교적 실천으로 회귀한다.

스코비의 종교적 모순이 드러나고 가톨릭의 전통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구조 속에서 그의 종교적 행위는 또 다른 윤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해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의 금지된 욕망(자살)은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가톨릭으로부터는 단절되지만,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이를테면 스코비는 현실원리를 벗어난 쾌락원리의 차원에서 보편타당한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율법적 전통으로부터 단절을 이루는 그의 금지된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의 실현이 윤리적 위상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그의 선택을 설명하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분열되어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되어있는 스코비의 자아는 스코비가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그의 주체성이 충동과 욕망의 타협으로부터 성립됨을 알려준다. 이 분열과 타협은 항상 실제적 자아와 의식적 자아 사이의 균열 속에 존재한다. 이는 라캉이 응시라는 개념으로 지칭한 타자와의 관계망 속에서 발생한다.

라캉은 응시를 “주체의 욕망을 구성하는 시선”이라 설명한다. 시선이 바라보는 눈과 바라보아지는 눈 사이의 상호적 과정이라면, 응시는 주체로부터 타인에게 투사된 시선이 다시 주체에게로 돌아오는 일방적 과정이다. 전통적인 현상학적 관찰에서 자아는 보는 행위와 보여지는 행위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립된다. 라캉은 이 두 행위 사이의 근본적인 이율배반을 지적한다. 감각적인 차원에서 의식은 물리적 직접성을 넘어 관찰대상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체가 대상을 관찰할 때 대상이 관찰되는 지점에서 주체는 대상을 바라볼 수 없고, 응시를 구성하는 욕망이 대상의 실제적 본질로부터 주체를 멀리 떼어놓기 때문이다. 결국 주체가 바라보는 것은 본질로부터 유리된, 일종의 지각적 반영물이다. 라캉은 이 지각적 반영물을 대상 아(objet a)라 부른다. 대상 아는 본질을 갖지 않는다. 애초에 그것은 주체의 욕망이 투사된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상이 주체의 시선을 다시 돌려준다고 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대상은 주체의 시선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다.³⁾

스코비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그의 욕망의 총체적 구성물이다. “실패한 사람은 사랑해도 성공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236) 스코비가 맺는 관계의 중심에는 3년 전에 죽은 외동딸의 기억이라는 욕망의 구심이 있다. 그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연민과 책임감이 정열처럼 솟아오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내의] 초라한 모습”이다(13). 마찬가지로 헬렌을 처음 만났을 때 스코비는 들것에 실려 나오는 그녀의 “피로에 지친 초라한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108).

스코비는 “죽은 딸을 대리하는” 대상들에 연민과 사랑을 느낀다(Spurling 41). 죽은 아이의 내밀한 기억이 타인에게 투사되고, 이러한 연민은 다시 스코비에게 돌아와 보호자이자 신이며, 대타자로서 스스로를 재정립한다. 이를테면 그는 연민이라는 외상적 욕망으로 세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셈이다. 응시와 결핍이 조우하는 이 지점에 스코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존재한다. 그는 죽음까지 넘어서는 욕망의 무한한 실현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고, 가톨릭 전통이라는 거대한 상징체계에 균열을 만들어내며 한편으로는 그것과 조응한다.

IV. 결론

스코비의 연민은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가진다. 그의 실천은 율법과 교리에 얽매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톨릭 전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적 지평으로 열려있다. 스코비는 “타인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바칠 만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윤리적 방향성을 조명한다(Erdinast-Vulcan 52). 스코비가 “죄악에 연루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을만한 인물”로 남는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Torre 74).

가톨릭 전통에서 금기시되는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스코비의 죽음에서 예수의 모습이 중첩되는 것은 그가 세상일과 무관한 신, “오염되지 않도록 장치된 연구실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교회법 학자들에 의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에게 관심

이 없기 때문이다(최현희 58). 스코비는 율법적인 명령이 인간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자살의 종교적 의미를 알지만 사람들을 향한 그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다. 또한 죽음을 불사하며 금지된 욕망을 실현하고 율법을 위반한다. 가톨릭의 질서에 대한 그의 근원적 거부는 그를 기존의 종교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이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적 신념을 구성하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그는 타인에게 연민을 보이며 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돌봐주려 했지만 이러한 부담이 여전히 신을 찾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신으로 회귀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실제의 신, 쾌락 원칙 너머에 존재하는 순수한 욕망을 실천함으로써 가톨릭적 율법보다 더욱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윤리를 실천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스코비의 실제적인 종교적 신념이고 윤리적 실천이다.

스코비의 종교적 행위는 현실적 신념으로 치환됨으로써 보다 승고한 차원으로 승화된다. 이러한 행위는 가톨릭 원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천적 윤리가 더해진 실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도 한다. 스코비의 보편적 실천윤리는 가톨릭의 전통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그 형식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가톨릭의 공간 속에서 가톨릭과 단절하는 그의 행위는 전통적 교리나 규범을 반복하지 않고 인간의 본원적 도덕성으로 회귀하며 제도화되고 관습화된 교리를 실천적으로 재정립한다. 이는 종교가 부정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신념과 실천의 지평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코비의 죽음은 관습화된 가톨릭의 전통과 단절하는 대신 실존적 종교윤리를 실천하고, 억압적 율법과 형식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종교의 질서를 다양한 인간이 마음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열린 공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Notes

- 1) 이후의 인용은 쪽수만을 표기한다.
- 2) 라캉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내밀한 감정들, 가령 연민이나 슬픔, 기쁨 같은 감정들조차도 타인에게 손상 없이 온전히 전이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우리의 감정은 내적 작인의 결과가 아닌 외부적로부터 받은 것일 수 있다. 가령 티비쇼에서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이 웃어야 하는 부분에서 미리 녹음된, 혹은 동원된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들려준다. 지젝은 이를 “웃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티비에 구현된 대타자가 대신 덜어주는 것”이라 설명한다(*Sublime* 40).

- 3) 자세한 설명은 라캉의 『정신분석의 네 가지 핵심개념』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70-75 페이지 참조.

인 용 문 헌

- 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 박운승. 「Graham Greene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종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슬라보예 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기독교 비판 및 유물론과 신학의 문제』. 김정아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 이광희. 「사건의 핵심: 사랑의 심연」. 『신영어영문학』, 35권, 2006, pp. 127-42.
- 최영호. 「『사건의 핵심』에 나타난 그린의 도덕관」. 『인문학연구』, 28권, 2002, pp. 1-17.
- 최현희. 「Graham Greene의 소설과 아래로부터의 신학」.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Antor, Heinz. "Graham Greene as a Catholic Novelist." *Graham Greene: A Critical Symposium*, edited by Peter Erlebach and Thomas Michael Stein, Peterlang, 1991, pp. 91-117.
- Erdinast-Vulcan, Daphna. *Graham Greene's Childless Fathers*. Macmillan, 1988.
- Greene, Graham. *The Heart of the Matter*. Penguin Books, 2004.
- Hynes, Joseph. "The 'Facts' at *The Heart of the Matter*."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13, no. 4, 1972, pp. 711-26.
- Lacan, Jacques.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by Alan Sheridan. Norton, 1998.
- Leah, Gordon. "A Bad Catholic?: Reflections on Issues of Faith and Practice in Graham Greene's *The Heart of the Matter*." *Heythrop Journal*, vol. 48, no. 5, August 2007, pp. 776-79.
- Lodge, David. *Graham Greene*. Columbia UP, 1966.
- Spurling, John. *Graham Greene*. Methuen, 1983.

Torre, Michael. "Greene's Saints: The Whiskey Priest, Scobie, and Sarah." *Logos*, vol. 7, no. 1, 2004, pp. 63-77.

Wyndham, Francis. *Graham Greene*. Longmans, 1962.

Zizek, Slavoj.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Abstract

Reconsidering Catholicism and Practical Ethics in Graham Greene's *The Heart of the Matter*

Myungsung Kim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ddresses questions and provocations on Catholicism in Graham Greene's *The Heart of the Matter*, especially in regard to the way in which the Catholic doctrine has been rejected in the modern world. Greene represents the inner conflict of Henry Scobie,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in complex dimensions of religious ethics and its actual practices. Considering Henry's disbelief in the light of his strong sense of empathy and emotional bond with others highlights the way in which the western society has been reconstructed in its relationship with God. Scobie, experiencing absurdity of the Catholic god and the society grounded in its principles, takes the role of the god. God becomes relocated into the position of another 'other'. Henry's inner turbulence and his religious skepticism illuminates the modes in which the deconstructive practices of religious doctrine open up new possibilities wherein modern subjectivity is captured and probed.

Key Words: Graham Greene, postmodern subject, Slavoj Zizek, the big Other, *The Heart of the Matter*

논문접수일: 2021.01.18

심사완료일: 2021.02.09

게재 확정일: 2021.02.24

이름: 김명성

소속: 목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이메일: mkim1051@mokpo.ac.kr